



최홍희의 ‘태권도 5대정신’에 대한 비판적 수용

김영선*

1. 연세대학교, 강사

요약

목적 이 논문은 태권도계 대세로 뿌리내린 5대정신을 비판적 수용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5대정신의 한계성과 강점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그 결함을 보완하고 강점을 수용함으로써 보편타당한 태권도정신의 수립에 일조하는 것이다.

방법 연구방법은 철학적 분석이 채택되었다. 세부적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5대정신은 언제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연원을 갖는가. 둘째, 5대정신의 세부 내용은 무엇인가. 셋째, 비판적 수용 관점에서 5대정신의 강점과 한계성은 무엇인가.

결론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5대정신의 강점으로는 대중성, 간명성, 태권도 맥락성 3가지를 들 수 있다. 반면 5대정신의 한계성으로는 다음 4가지로 파악되었다. 첫째, 태권도 대의명분인 이념이 부재했다. 둘째, 정신개념이 사회적 덕목과 정신력으로만 협소하게 설정되었다. 셋째, 예의와 염치와 같은 용어가 의미상 연결되는 유의성 또는 중복성을 갖는다. 넷째, 백절불굴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당시 군 장성이었던 최홍희의 가치관에 따라 정신력 요인에 치중했다. 이러한 장단점은 새로운 태권도정신의 수립에 심도 있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태권도정신, 태권도 5대정신, 최홍희, 태권도 철학

I. 서론

최홍희가 표방한 ‘태권도 5대정신(이하 5대정신으로 표기)’은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이다. 최홍희는 1955년 태권도란 명칭을 공표했고 이어 1959년 자신의 저서 ‘태권도교본’의 서두에 붓글씨로 태권도정신을 게재했다(Choi, 1959). 최홍희가 지정한 태권도정신은 ‘5대정신’이란 명칭으로 지금까지도 태권도계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Kim, 2011a).

그 단적인 예는 국기원 태권도연구소가 775명의 태권도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태권도정신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이다(Lee, Yoo, Song & Kim, 2014). ‘5대정신에 대한 견해’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8.5%가 동의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9월에 육박하는 응답자들이 5대정신을 태권도정신으로

인식하는 것은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여실히 입증한다.

또한 ‘태권도 수련의 정신적 가치’ 설문에서 1,093개의 키워드가 추출되었는데 그 결과는 인내(25.1%), 예의(18.3%), 정신력(6.4%), 자신감(6.1%), 끈기(5.7%), 극기(4.8%), 도전정신(4.3%)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유사 개념인 인내와 끈기, 극기를 합치면 36.6%가 되고 18.3%인 예의까지 추가하면 55%에 달한다. 따라서 이 설문 결과를 통해 대다수 태권도인이 태권도정신의 인식 실태가 5대정신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태권도인들의 이 같은 인식 실태와는 별도로 태권도계는 1980년대 중반부터 5대정신과 차별화된 태권도정신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그 주된 이유는 국기원 태권도교본과 지도자 교육에 필요한 정신철학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Han(1985), Ahn(1998), Kim & Kwak(2000), Lee, Lee, Han & Ahn(2006), Lee(2011), Song(2012), Jang(2017) 등 기관 차원의 연구를 비롯한 여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B유형)’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kystae@naver.com

러 학술적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태권도정신에 대한 내용 분석과 해결안을 내놓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5대정신을 능가하려는 그러한 대안들은 앞서 거론되었듯이 태권도인들에게 그다지 공감을 얻지 못했다. 그 이유는 태권도 현실과는 동떨어진 광범위한 역사철학적 서술이나 일반적 사회 덕목과 용어 개념의 연결성 또는 복잡다단한 철학 이론의 무리한 적용에 편중되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타당한 태권도정신은 이론적 논리성을 갖추면서도 현장 태권도인들의 수련과 활동에 직결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면도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는 태권도계에서 이미 보편화된 5대정신의 장단점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5대정신이 어떤 내용이고 왜, 어떻게 태권도계에 정착했으며 아울러 그 강점과 한계성이 무엇인지 그 타당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간 5대정신을 고찰한 선행 연구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갖가지 한계 양상을 보였다. 그것은 5대정신을 단정적으로 부정하거나 그 반대로 무비판적으로 전면 수용하는 접근 방식이었다. 또한 5대정신의 문제점을 개략적으로 지적한 정도에 머물렀다. 5대정신에 대한 전면 부정이나 무비판적 수용 그리고 개괄적이고 단편적인 접근으로는 새로운 태권도정신은 원만히 수립되기 어려울 것이다.

5대정신을 극복하는 설득력 있는 대안은 무엇보다도 5대정신을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써 창출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태권도계 대세로 정착한 5대정신을 ‘비판적 수용’의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여기서 비판적 수용(critical acceptance)이란 ‘선행 주장이나 논지의 의미 맥락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아울러 타당성 있는 내용도 거론하고 수용하는 접근 방법’을 의미한다(Kim, Kim, & Kim, 2017). 이 논문의 목적은 5대정신의 한계성과 강점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그 결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수용함으로써 보편타당한 태권도정신의 수립에 일조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철학적 분석이 채택되었다. 철학적 분석(philosophical analysis)은 개념을 명확히 따져보고 옳다고 믿을만한 좋은 근거가 있는 정당화된 신념인지를 다룬다.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미 분석이 필요하고 정당화된 옳은 신념을 정합성 있게 유지하는 논리적 접근 방식이다(Lee, 2016).

세부적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5대정신은 언제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연원을 갖는가? 둘째, 5대정신의 세부 내용은 무엇인가? 셋째, 비판적 수용 관점에서 5대정신의 강점과 한계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II. 태권도 5대정신

5대정신은 1959년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5개의 정신 항목은 인간 생활에 요청되는 보편적인 덕목에서 유래한다. 그렇지만 당시 무예계에서 거론되었던 화랑도정신, 무도정신, 관훈(館訓) 등 관련 정신 요인과 수련생의 올바른 행동 지침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1. 5대정신의 태동

5대정신은 최홍희에 의해 개진되었다. 그는 1959년 자신의 저서인 ‘태권도교본’에 5대정신을 게재했다. 자신이 직접 쓴 한문 붓글씨 ‘跆拳道精神 - 禮儀, 廉恥, 忍耐, 克己, 百折不屈’이 교본의 서두에 실렸다(Choi, 1959).

5대정신이 처음 나왔을 때는 예의 등 다섯 개의 단어만 간단히 표기되었다. 그런데 최홍희 자신이 왜, 어떤 연유에서 5가지 단어를 태권도정신으로 정했는지 전연 언급이 없었다. 더욱이 각 항목이 어떤 뜻을 갖는지에 대한 설명도 생략되었다. 대신 교본에서는 ‘수련상의 주의, 제2항 예의(禮儀)’에서 다음 설명이 나온다.

태권은 경례에서 시작하여 경례로 끝난다. 모든 무도가 예의를 존중함에는 변함이 없겠지만 특히 태권만은 연습전 후에 사범과 선배에게는 물론 동료 간에도 경례는 절대적인 것으로 되어있다. 생각건대 이는 동방예의지국으로 이름난 우리나라에 기원된 특수성에 의한 것이라고 믿어진다(Choi, 1959).

앞 인용문은 예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밝히고 있다. 즉 예의란 수련장에서 사범이나 선배 윗사람은 물론 동료에게도 인사를 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같이 5대정신 중에서 예의에 한해서는 짧게라도 해설이 나왔지만, 나머지 항목은 찾아볼 수가 없다. 다만 ‘태권도의 가치, 정신수양’에서 다음 문장이 실렸다.

태권도는 기술보다는 인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태권은 예의와 염치를 존중하는 인격도야를 근본정신

으로 하는 까닭이다. 수련 정도에 따라 겸양, 인내 및 극기와 동시에 정의와 유진무퇴(有進無退)의 기개를 기를 수 있는 무도이다(Choi, 1959).

교본에서는 5대정신 중 진하게 표시된 4개 단어가 나열되었다. 그리고 겸양, 정의(正義), 유진무퇴의 기개와 함께 태권도가 인격도야를 위한 무도임이 강조되었다.

2. 5대정신의 연원

5대정신의 주요한 특징은 일반화된 사회 덕목이나 무도(무예)정신으로 통용되던 항목 중 5가지가 설정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의 무도정신이나 보편적 미덕(美德)에서 유래한 것이다. 무도정신의 원천은 동양의 유불도(儒佛道) 사상이 접목된 한국의 화랑도정신과 일본의 무사도정신과 밀접히 연관된다. 이들 사상은 검도, 유도, 가라테, 아이키도(氣合道) 등 각 세부 종목에 파급되었다(Kim & Yeo, 2018).

한국에서는 광복 이후 당수도, 권법, 수박도란 명칭으로 5대 기간도장(5대관)이 창설되었다. 이들 무예는 태권도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존재했다. 4권의 무예서적과 최초의 태권도 교본에 나온 정신과 관련된 내용은 발행연도 순으로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

화수도교본(Hwang, 1949)에는 화랑도 세속오계(世俗五戒) 사상에 입각한 심신수련, 평화정신, 결백, 정의(正義), 화수도에 선수가 없다 등이 나왔다. 당수도교본(Hwang, 1958)에는 무덕관 정신수양상 중점에서 예의, 겸양심, 희생심, 용기 배양, 인내심 등이 열거되었다. 권법교본(Choi, 1955)은 화랑도와 불교 사상을 강조했고, 권법에 선수가 없다. 자신감, 정신력, 겸양의 덕을 언급했다. 파사권법(Park, 1957)에서는 불굴의 정신, 용기, 예절, 염치, 극기, 정의감, 파사현정(破邪顯正). 정도선행(正道善行)과 진성보국(盡誠報國)이 명기되었다. 최초의 태권도교본(Taekwondo Instructor's Staff, 1959)은 화랑도, 유교사상, 군인정신과 연결시켜 지(智), 인(仁), 용(勇) 3개 덕목을 지정하고 간략히 해설하였다.

각 교본의 집필자에 따라 정신 내용이 다소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이들 정신 내용은 '정신'의 단어 개념에 근거하여 다음 세 가지 의미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째, 무예의 이념 둘째, 무예수련자가 지켜야 할 윤리적 덕목 셋째, 무예인의 정신력 또는 의지력 요소이다(Kim, 2011b). 이 같은 세 가지 정신의 용어 개념에 근거하여 기존의 무예정신

을 풀이해 본다.

첫째, 평화정신, 파사현정, 진성보국 등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이념적 의미이다. 무예의 주된 수련 목적이 거창하고 정당한 대의명분(大義名分)에 따라 지향해야 함을 역설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무예의 존재 가치가 사회와 국가를 위해 이바지한다는 주장을 내포한 것이다.

둘째, 무예인이 지켜야 할 바람직한 사회 윤리적 덕목이다. 양식 있는 무예인으로서 함양해야 할 정신자세나 인격적 행동 기준으로서 예절, 염치, 극기, 정의(正義), 겸양, 결백 등 여러 덕목이 제시되었다.

셋째, 무예인의 정신능력 또는 의지력에 관한 것이다. 불굴의 정신, 자신감은 살벌한 폭력적 위협이나 격투 상황을 극복하는데 요청되는 정신력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인생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인내심 등 필수적인 의지력의 발휘를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이념, 사회덕목, 정신력의 3가지 세부 개념이 무예정신이란 총체적 개념으로 혼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태권도가 나오기 이전부터 각 도장에서 표방했던 관훈(館訓)도 5대정신과 밀접하다. 5대관이 모체가 되어 한국전쟁 이후에 분파한 9개관에서 채택한 관훈 중 대표적인 것을 들어본다. 창무관은 충효, 성실, 인내였다. 송무관은 예의존중, 극기겸양, 부단노력 등을 내세웠다, 한무관은 무언(無言)실천, 근면, 인내 등을 강조했다(Heo, 2015).

초기 무예교본이나 관훈에 나온 이 같은 정신항목은 5대정신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다시 말해 5대정신은 무예정신의 내용이나 관훈의 사례들이 실마리가 되어 착안되고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Ⅲ. 5대정신의 세부 내용

5대정신이 태권도정신으로 설정된 구체적인 의미는 1972년 출판된 '태권도교서'에서 나온다. 첫 저서가 간행된 지 13년 만에 5대정신의 해설이 보충되었다. 그 내용에 대해 전문을 소개하고 상세히 고찰하기로 한다.

1. 예의(禮儀, courtesy)

5대정신의 예의는 다음과 같이 해설되었다.

예의 수련생은 에티켓 이외에도 다음 사항을 지키도록 최 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

1. 서로 양보하는 정신을 양양하고
2. 남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악습을 부끄러워하고
3. 상호간의 인격을 존중하고 겸손하여야 하며
4. 정의감을 장려시켜야 한다.
5. 사범과 제자 그리고 선배와 후배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Choi, 1972).

예의는 윗사람이나 동료에게 깎듯이 경례를 잘하는 것이라고 앞 장에서 거론된 바 있다. 여기서 최홍희는 인사성과 더불어 예의의 의미를 5개의 문장으로 상세히 서술하였다. 양보심, 타인 비방 삼가, 상호 존중과 겸손, 정의감(正義感), 사제 및 선후배 상하규율 등 여러 덕목들이 추가적으로 예의항목에 포함되었다.

그런데 5대정신에서 예의에 속한 연계덕목이 너무 광범위하고 다양하여 확대 해석된 면이 적지 않다. 예를 들면 2항의 ‘남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악습을 부끄러워하고’란 의미는 예의라기보다는 염치에 가깝다. 따라서 5대정신의 예의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의 표현 방식이므로 인사성, 양보, 존경, 겸손, 염치 등의 미덕을 포괄하고 있다.

예의는 유가(儒家) 사상에서 기인하는 동양의 보편적인 가치관이자 행동 규범이다. 중국에서는 태권도가 ‘예의로 시작해서 예의로 끝나는 운동[以禮始, 以禮終]’으로 인기가 높다(Kim, 2014).

예의는 국기원 태권도연구소에서 수행한 실증연구에서도 수많은 덕목 중 최고의 정신적 가치로 선정되었다(Lee, Yoo, Song & Kim, 2014). 그러한 원인은 5대정신의 영향력과 더불어 태권도계의 현실적 필요성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대한태권도협회의 예의규범(Korea Taekwondo Association, 1972)과 국기원의 ‘태권도인의 예절(Kukkiwon, 2011)’이 제정된 것은 기관차원에서 예의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2. 염치(廉恥, integrity)

5대정신의 두 번째 항목이 염치이다. 최홍희는 자기가 뜻하는 염치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다음의 6개의 문장으로 상술했다.

- 염치: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하며 만약에 그릇된 일을 했을 때는 비록 삼척동자일지라도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는데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1. 배워줄 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도자인양 선량

- 한 수련생들을 그릇된 길로 이끌어.
2. 시범 때에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 송판을 풀로 붙인다거나 벽돌을 미리 금 가게 하는 등 눈가림 수로 깨트리기도 관중이나 제자에게 뻔뻔스럽게 대하는 것.
3. 도장을 필요 이상으로 사치스럽게 또한 사무실에 거짓 상장이나 트로피로 장식하며 또한 지나치게 거짓 친절을 베풀어서 수련생의 환심을 사게 하며 자기의 무능함을 캄프라치하는 것.
4. 진정한 무도인은 단 혹은 급을 올려준다 하여도 사양할 터인데 반대로 실력 이상의 단 혹은 급을 요구하거나 돈을 주고 사고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는 사이비 무도인.
5. 진정한 제자를 기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도장을 운영하여 수련생에게 금품을 무리하게 요구한 다거나 증명서를 파는 행위.
6. 개인이 영리를 위하여 권력에 아부해서 진정한 무도인의 기본자세를 망각하면서도 무도인 행세를 하는 것(Choi, 1972).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 대상이 일반 수련생보다는 사범이나 지도자를 염두에 두었다. 즉 5대정신의 염치는 지도자급 태권도인의 불미스러운 행태를 지적하고 올바른 행동을 촉구하는 의도로 채택되었던 것이다.

3. 인내(忍耐, perseverance)

5대정신에서 인내는 다음과 같이 해설되었다.

인내: 참는 것이 덕이요 또한 백번 참으면 그 가정이 평화스럽다는 옛말과 같이 참는 자에게 행복과 번영이 오는 것만은 사실이다. 고단자이건 완벽한 기술의 소지자이건 간에 어떤 일을 달성하자면 먼저 목표를 설정한 다음 인내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것을 향하여 매진함으로써 소원성취를 할 수 있다. ... 태권도 지도자가 되려면 어떠한 고난에 부딪히더라도 참고 그를 극복하는 것이 비결의 하나이다(Choi, 1972).

최홍희는 인내가 태권도인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고난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비결이라고 설명하였다. 그의 말대로 인내가 인생의 성공이나 번영에 필수 조건임이 많은 태권도인도 동의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수련생, 선수, 지도자 등 많은 태권도인들이 인내를 중요한 정신적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다(Lee, Yoo, Song & Kim, 2014).

그 주된 이유는 인내가 수련생들이 열성 수련이나 승단과 대회 승리를 위해 발휘해야 하는 정신력 요인이기 때문이다. 정신력(mental toughness)으로서 인내는 경기에 참

가하는 선수들이 고된 훈련과 경기 상황에서 참고 견디는 능력을 뜻한다(Kim, 2002).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란 서양 격언이 있듯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내는 주요한 정신 덕목으로 간주되어 왔다. 참을성, 끈기, 과제집착력, 절제, 자제력 등은 인내와 상통하는 유의어이다(Kim, Song & Choi, 2015). 인내는 사람 누구에게나 필요한 정신능력이자 보편적인 덕목이지만 최홍희에 의해 5대정신의 일부로 도입되었다.

4. 극기(克己, self-control)

최홍희가 극기를 태권도정신에 포함시킨 사유는 다음과 같다.

극기: 도장 내외를 막론하고 자신을 억제한다는 것은 실로 중요한 문제이다. 가령 자유대련의 경우 어떠한 실수로 인하여 하급자나 동료들로부터 맞았을 때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감정으로 공격을 가한다면 그것은 곧 사고를 초래할 것이며 또한 검소하고 절제 있고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부러워하거나 허영심에 사로잡힌다면 무도인으로서의 위치를 잃게 되는 것이다(Choi, 1972).

최홍희가 해설한 극기는 무도인으로서 감정을 절제하고 조절하라는 의미이다. 즉 태권도 겨루기에서 감정을 조절하여 부상이나 폭력 사고를 방지하고 일상생활에서 검소, 절제하는 마음가짐을 극기 개념으로 적용했다.

그런데 원래 극기란 극기복례(克己復禮)의 유가(儒家) 사상에서 유래한다(Kang, 2009). ‘자기의 감정이나 욕심, 충동 따위를 이성적 의지로 눌러 이김’이라고 풀이된다(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그렇지만 5대정신에서 극기는 수련자가 태권도 수련상황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의지력과 나아가 검소, 절제하는 성품을 함양하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

5. 백절불굴(百折不屈, indomitable spirit)

5대정신의 마지막 항목인 백절불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백절불굴: 인류에게 잘 알려진 가장 위대하고도 용감한 행위에 대한 간단한 비석이 있는데 이 비문에는 “여기 의무를 다한 300명이 고이 잠들어 있다”라고 써여 있다. 이는 ‘레오니다스’와 그의 가장 용감한 부하 300명이 테모필레에서 페

르시아의 막강한 부대와 대적했을 때 백절불굴의 기백이 무엇인가를 전세계에 보여준 것을 말한다. 즉 그는 그의 용감성과 굳은 의지로써 압도적으로 우세한 적에 대하여 조금도 굴하거나 두려움 없이 끝까지 용전분투함으로써 백절불굴의 기백을 역력히 나타내 주었다. 이와 같이 올바른 태권도인이라면 평소에 겸손하고 정직함은 물론이지만 정의감에 입각한 분이라면 그 상대가 누구건 또한 그 숫자가 얼마이든 추후도 두려움이나 주저함이 없이 과감히 불굴의 정신으로 매진해야 하는 것이다(Choi, 1972).

여기서 백절불굴은 태권도인으로서 겸손과 정직, 정의감을 바탕으로 발휘하는 굳센 정신으로 해석되었다. 영화 ‘300’으로 알려져 있는 스파르타 전사(戰士)들의 용감한 행위가 사례로 제시되었다.

그런데 5대정신에서 백절불굴은 전장에서 그 숫자가 얼마이든 두려움 없이 맞서 싸우라는 군인정신의 어감이 강하다. 군인정신이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군인의 마음가짐’이다(Lee, 2012). 고대 전사인 화랑도의 임전무퇴(臨戰無退)와 상통하는 용감성, 불굴의 기백, 용전분투 정신이 백절불굴로 표현되었다.

백절불굴의 원어는 ‘백 번 꺾여도 결코 굽히지 않음’의 뜻을 갖는 고사성어이다(Planning Group, 2010). 즉 일반 사람들에게 백절불굴은 사고(事故), 불행, 실패, 병마(病魔) 등 난관에 맞서서 좌절하지 않는 굳센 의지력이다. 그러나 5대정신에서 백절불굴은 무도인이자 격투가로서 두려움 없이 맞서 싸우라는 투쟁정신을 강조하였다.

IV. 5대정신의 비판적 수용

이 논문은 5대정신의 강점을 수용하고 아울러 그 한계성을 지적하고 보완하려는 비판적 수용을 지향한다. 즉 정신의 용어 개념과 현재의 태권도 맥락에 근거하여 5대정신의 한계성을 거론하되 다른 한편으로 5대정신의 타당성 있는 강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관점이다. 비판적 수용의 목적은 5대정신에 대해 현재 태권도 실정에 맞는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1. 5대정신의 강점

5대정신이 현재까지도 태권도 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것은 여러 가지 강점을 갖기 때문이다. 그 장점은 대중성, 간

명성, 태권도 맥락성으로 파악될 수 있다.

1) 대중성

대중성이란 ‘태권도정신’하면 5대정신으로 간주하는 대중적 인식이 깊이 뿌리내렸다는 의미이다. 즉 5대정신은 1959년 공개된 이래 오랜 기간 동안 국내외 태권도계 전반에 광범위하게 보급된 현실적 상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5대정신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결코 용의하지 않다.

오늘날까지 5대정신이 영향력이 대중성을 확보한 이유는 최홍희의 권위성과 활발한 보급 활동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는 1950년대 말, 난립하던 무예단체를 ‘태권도’라는 명칭으로 통합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다종의 태권도 서적과 왕성한 활동으로 인해 태권도정신도 보편화되었다(Kim, 2014). 따라서 5대정신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미 태권도계에 널리 퍼져있는 정신적 지침이다. 이러한 상황은 5대정신이 여전히 유효한 강점이라고 할 것이다.

2) 간명성

간명성이란 5대정신이 보편적으로 쓰이는 정신적 가치 중에서 5개만 지정되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강점이다. 특히 예의, 인내와 같이 누구나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일반적 덕목과 정신 요인을 태권도정신으로 도입했을 뿐 아니라 그 요지가 간명히 설명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5대정신이 공개되기 이전에 나온 정신 덕목들은 특별한 기준 없이 갖가지 덕목들이 언급되거나 나열되는데 그쳤다. 반면 5대정신은 적절한 개수의 5가지 항목에 초점을 두어 ‘태권도정신’으로 명시되면서 일선 교육현장에 활용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5대정신은 화랑도의 세속오계와 동일한 5개 항목으로 계승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3) 태권도 맥락성

5대정신은 5개 항목을 태권도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해설된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1959년 최초 공개 당시는 5개의 단어만 명기되었으나 앞 단락에 나왔듯이 태권도교서(Choi, 1972)를 통해 예의, 인내 등 각 단어의 의미가 태권도인의 구체적인 행동지침으로 서술되었다. 즉 흔히 사회적으로 거론되는 일반적인 덕목이 태권도 수련과 활동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이고 왜 필요하고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지 그 요지를 명기하고 있다. 이는 다른 무도나 태권도 서적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장점이다. 5대정신의 해설 내용은 현실 상황에 적절하게 단순화되어 일부 교육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2. 5대정신의 한계성

5대정신이 태권도 현장에서 널리 채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시대의 태권도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 주된 이유는 5대정신이 60년 전에 인식되었던 무도인의 마음가짐과 행동지침에 국한되었을 뿐 아니라 태권도의 올림픽 진출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5대정신의 개념과 내용에는 최홍희의 주관적 인식과 가치관이 반영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원인에서 발생하는 5대정신의 한계성은 다음 4가지로 파악될 수 있다.

1) 태권도 대의명분인 ‘이념’의 부재

5대정신에는 태권도의 대의명분이자 원대한 이념이 결여되어 있다. 원래 정신의 의미에는 개인의 정신능력과 바람직한 덕목뿐만 아니라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관념인 이념도 포함되어 있다. 즉 화랑도정신, 민주주의정신과 같이 사물의 근본적인 의의나 목적 또는 이념이나 사상까지 포괄한다(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더욱이 정신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이기보다는 시대정신, 문화정신 등 객관적인 특성을 갖는다(Cheong, 2012). 이러한 의미 맥락에 따라 정신은 개인적 덕목이나 정신력보다는 태권도의 대의명분과 같은 이념이 더욱 비중이 높다.

5대정신에서 예의와 염치는 사회적 덕목이다. 인내, 극기, 백절불굴은 정신력의 의미가 두드러진다. 따라서 5대정신에는 태권도의 이념으로 삼을만한 단어는 부재하다. 반면 최홍희는 ‘태권도에 선수가 없다’라는 이념성의 문구를 단적으로 태권도정신을 표현했다고 기술했다(Choi, 1959). ‘수련상의 주의, 제1항’에서 ‘태권도의 정신’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태권의 정신을 단적으로 표현한 ‘태권에 선수(先手)가 없다’는 말로 미루어 볼 때, 이는 개인의 싸움의 도구로 삼거나 호전적인 잡술의 그릇된 사상과는 판이하게 오로지 자신을 보호하고 약자를 도우려는 군자도(君子道)인 것이다. 이 숭고한 정신을 망각한다면 제야무리 벌곤의 기술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는 참다운 태권가라 할 수 없다(Choi, 1959).

여기서 최홍희의 정신개념 인식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나온다. '태권의 정신은 선수가 없다'란 표현이다. '선수가 없다'란 문장은 어떤 경우라도 상대방에게 폭력적 선제공격을 결코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풀어 쓰면 상대방이 나에게 위해(危害)를 가하는 공격이 있어야만 비로소 그에 맞서서 자기방어적인 기술을 발휘하여 상대방을 물리친다는 정신이다(Lee, 2003). 즉 태권도는 정당방위를 위한 '자기방어 호신정신'을 지향한다는 목적성을 밝힌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태권도정신의 개념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긴다. 앞서 최홍희는 예의 등 5대정신을 태권도정신이라고 천명했지만 다른 단락에서는 태권도의 정신이 '선수가 없다'라고 했다. 그는 5대정신과 함께 '선수가 없다'도 별다른 구별 없이 태권도정신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조차도 류우큐우(琉球) 권법인 투디(唐手)에서 공수도(空手道)로 변천한 카라테의 사상을 답습한 것이다(Zacharski, 2019).

2) 정신개념의 협소성

앞 장의 논리와 상통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고찰될 필요가 있다. 5대정신에서 '정신'이란 용어 개념상의 협소성 문제이다. 즉 5대정신은 이념이 빠진 사회적 덕목과 정신력 요소로만 한정되었음이 언급된 바 있다. 이에 대해 Lee (2010)와 Heo, Kim & Nam(2014)은 5대정신의 개념구성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했다. 5대정신은 상위의 '태권도정신'이라기보다는 '태권도인이 가져야 할 자세'나 '행동규범의 특성'이 강하다는 비판이다.

이 반론들이 타당성이 높은 것은 당사자 최홍희(Choi, 1972)의 저서에 나온 단어 용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서적에는 '정신'이라고 표기했지만 '좌우명(motto)'이라고도 썼다. 또한 영어로는 정신을 뜻하는 'spirit'이 아니라 주의(主義), 교의, 신조를 뜻하는 'Tenets(테네즈)'란 단어로 번역했다. 이러한 논리적 근거에 따라 5대정신은 정신 개념에 포함되긴 하지만 실천덕목이나 행동지침에 가깝다.

3) 항목 개념의 유의성과 모호성

5대정신에서 항목 개념의 유의성(類義性) 또는 모호성도 주요한 지적사항이 될 수 있다. 특히 5대정신에 나온 예의와 염치 항목이 그러하다. 즉 예의와 함께 포함된 염치 항목은 예의 항목과 개념적 유의성 또는 모호성 때문에 별도

의 정신항목으로 구성해야 할 중요도가 떨어진다. 게다가 염치 말고도 주요한 정신 덕목이 많기 때문이다.

글자의 원뜻으로는 염치는 예의와 구별된다. 의당 단어가 다른 만큼 그 사전적 의미와 철학적 해석도 다를 것이다. 그렇기에 최홍희는 예의와 염치를 각각 다른 의미를 갖는 5대정신에 포함시키고 해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의와 염치는 개념상 밀접한 연결성을 갖는 단어이다. 두 단어의 밀접성은 유의어사전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국내의 대표적인 유의어사전인 '낱말'은 염치의 유의어로 예절을 명시했다. '얌통머리'가 가장 가까운 유의어이고 그 다음이 예절이다. 수치심, 수치감은 예절보다 유의성이 낮다(Vocabulary Information Processing Laboratory). 예절은 예의에 관한 모든 절차나 질서를 일컫는다(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예의가 바른 사람이 예절도 잘 지키고 당연히 염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염치 또한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한 바람직한 마음가짐이란 면에서 예절, 예의에 포괄되는 덕목으로 판단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염치를 예의 개념에 포함시킨 단적인 사례는 최홍희 스스로가 규정한 5대정신의 예의 개념이다. 앞 장 '예의'의 해설 중 둘째 항목은 '남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악습을 부끄러워함'이란 염치 개념을 포함시켰다(Choi, 1972). 즉 5대정신을 주창한 당사자가 예의 개념에 염치 내용을 게재한 것이다. 그 실제적인 용례가 5대정신의 해설에서 나온 셈이다.

또 다른 문제로는 염치가 5대정신에서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행동지침에 초점을 두었기에 일반 수련생과는 관련성이 떨어지는 모호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점이다. 즉 최홍희는 염치를 선택한 의도가 지도자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영어 번역조차도 염치 의미인 'a sense of shame'이 아닌 'integrity'로 처리되었다(Choi, 1972). integrity는 성실, 정직, 진실성으로 번역된다. 한글 단어인 염치와는 거리감이 있다. 여러 일선 지도자들은 염치 대신 성실성으로 대체해서 활용하기도 한다(Seo, 2009.3.2).

이처럼 5대정신에서 염치는 예의와 유의성을 가질 뿐 아니라 개념상의 혼돈을 초래하는 단어이다. 따라서 염치 단어를 굳이 예의와 함께 5대정신에 포함시켜야 할 타당성이 떨어진다. 염치보다도 태권도정신으로 삼을만한 주요한 윤리적 덕목들이 여럿 있다. 정직, 정당(태권도의 정당방위적 용도와 태권도인들이 올곧은 태도를 지향해야 하므로), 공정(公正) 등이 태권도인의 바람직한 도덕적 태도와 성품 발

달에 더욱 큰 기여를 할 것이다(Kim, Song & Choi, 2015).

4) 정신력 요인에 치중

5대정신에서 인내, 극기, 백절불굴은 유사성을 갖는 정신력 요인이란 점도 결점의 하나이다. 당시 육군 장성이었던 최홍희는 태권도 수련을 통해 강인한 의지력 배양에 치중하여 인내, 극기, 백절불굴 등 3종의 유의어를 5대정신으로 편성하였다. 물론 그 단어의 개념과 태권도 맥락적 의미는 다르게 해설되었지만 3단어 모두 포괄적인 의지력 또는 정신력 요인으로 간주된다.

극기를 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백절불굴이 필요하다. 따라서 극기는 인내와 백절불굴과도 밀접한 개념이다. 이는 Ryoo(2007)의 다음 설명과도 일치한다. “인내심이 없으면 당연히 극기가 되지 않고 극기가 없으면 당연히 백절불굴의 기상과 정신이 나타날 수 없다.” 이와 같이 인내와 백절불굴은 극기의 실천적 형태이면서 정신력 요인에 속한다.

인내, 자신감 등의 정신력은 무도정신과 스포츠 경기력에 주요 요인으로 간주된다. 정신력의 개념은 ‘경쟁적인 상황 속에서도 한층 높은 재능과 기술을 향해 끊임없이 일을 수행하는 능력’이다. 선수들이 자신의 불리한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굽히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여 끝까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승리하겠다는 의식이다(Kim, 2002).” 선수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극기훈련 프로그램이 일반화된 현상에서 정신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인내, 극기, 백절불굴의 정신력이 5대정신의 6할을 차지하는 이유가 격투 무예의 특성과 군인정신을 반영한 최홍희의 가치관이 결부된 것으로 판단된다.

V. 결론 및 제언

명실상부한 태권도정신을 확립하기 위한 선결과제는 5대정신의 장단점을 철저히 분석하는 방안이다. 그 주된 이유는 태권도정신을 활용하는 당사자들인 태권도인들의 현실적 인식과 인성교육을 위한 현장 활용성이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태권도 5대정신이 지금까지는 그러한 현장성을 갖는 대중적인 태권도정신일 것이다. 그러한 사실은 여러 실증적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비판적 수용의 관점에서 5대정신의 강점과 한계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5대정신의 강점으로는 대중성, 간명성, 태권도 맥락성 3가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강점은 최홍희의 권위성을 바탕으로 실행된 활발한 연구와 보급 활동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반면 5대정신의 한계성으로는 다음 4가지로 파악되었다. 첫째, 태권도 대의명분인 이념이 부재했다. 둘째, 정신개념이 사회적 덕목과 정신력으로만 협소하게 설정되었다. 셋째, 예의와 엄치와 같은 용어가 의미상 연결되는 유의성 또는 중복성을 갖는다. 넷째, 백절불굴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당시 군 장성이었던 최홍희의 가치관에 따라 정신력 요인에 치중했다. 이러한 장단점은 새로운 태권도정신의 수립에 심도 있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의 연구 결과 다음 두 가지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는 5대정신의 한계성에서 거론되었듯이 세계화된 태권도의 위상을 대변하는 대의명분인 원대한 이념이 별도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예로는 우리나라 고유사상이자 현행 교육이념인 홍익사상을 들 수 있다. 그렇지만 포괄적이면서 다의적인 홍익사상이 무예스포츠인 태권도의 이념으로서 어떠한 관련성을 맺을 수 있는지 실증적인 사례들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고찰되어야 한다. 둘째는 5대정신은 정신개념에 포괄되지만 추상적인 이념을 구체화하는 실천덕목이나 생활신조로 재설정되어야 한다. 즉 정신의 포괄적 의미에 따라 상위 개념의 이념과 하위 요소의 덕목으로 이원화될 필요가 있다. 정신의 이원적 구성 내용은 현재 태권도의 현실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정신적 가치가 학술적으로 규명되어야 한다.

References

- Ahn, Y. K. (1998).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Perspective on Taekwondo History and Taekwondo Spirit*. Unpublished paper, Korea Taekwondo Association.
- Cheong, Y. D. (2012). *Dictionary of Philosophy; the Root of Concepts*. - Interscience Publication, Busan: Ikyeong Publishing.
- Choi, H. H. (1959). *Taekwondo Textbook*. - Interscience Publication, Seoul: Sunghwa Cultural Publishing.
- Choi, H. H. (1972). *Teaching Textbook of Taekwondo*. - Interscience Publication, Seoul: Jeongyeonsa Publishing.
- Choi, S. N. (1955). *Kwonbeop(Martial art) Textbook*. - Interscience Publication, Seoul: Dongseo Cultural Publishing.

- Han, S. J. (1985). *Korean Traditional Thought & Taekwondo*. A Workshop Journal of the 1st World Taekwondo Seminar. Unpublished paper. Kukkiwon.
- Heo, I. W. (2015). A Study on the Taekwondo spirit before the 1960s. *Taekwondo Journal of Kukkiwon*, 6(1), 1-20.
- Heo, I. W., Kim S., & Nam, D. H. (2014). *A Reviewal Study on the Spirit on the 9 Taekwondo kwans and the Existing Spirit*. Unpublished paper. Kukkiwon.
- Hwang, K. (1949). *Hwasoodo Textbook*. - Interscience Publication, Seoul: Joseon Cultural Education Publishing.
- Hwang, K. (1958). *Tangsoodo Textbook*. - Interscience Publication, Seoul: Kyeoryang Cultural Publishing.
- Jang, S. W. (2017). *Exploration on Re-establish of Taekwondo Spirit in Response to Globaliz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 Kang, Y. S. (2009). *The Wisdom*. - Interscience Publication, Seoul: Moonjisa Publishing.
- Kim, K. H., Kim, H. Y., & Kim, D. S. (2017). Developing Integrated Activity of Critical Acceptance based on "Critical Discourse Analysis". *The Journal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20(3), 75-99.
- Kim, K. J., & Kwak, J. H. (2000). A Study for The Philosophical Thesis of Taekwondo Spirits. *The Korea Journal of Sports Science*, 9(1), 3-14.
- Kim, W. B. (2002). An Analysis of the Sport Mental Power Construct and Development of the Sport Mental Power Inventory in Korean Competitive Sports. *Korean Journal of Sport Psychology*, 13(3), 21-41.
- Kim, Y. C. (2014). *The Theory of Taekwondo Courtesy*. - Interscience Publication, Seoul: Korea Photographic Cultural Center.
- Kim, Y. S. (2011a). Detailed pla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Taekwondo spirit authorized by Kukkiwon. *Taekwondo Journal of Kukkiwon(appendix)*, 2(1), 7-15.
- Kim, Y. S. (2011b). *Theory of Taekwondo spirit*. The 1st & 2nd Training Textbook for Taekwondo Masters. Unpublished paper. Kukkiwon.
- Kim, Y. S. (2014). A Study on the First Taekwondo Textbooks. *Taekwondo Journal of Kukkiwon*, 5(2), 1-24.
- Kim, Y. S., Song H. S., & Choi, J. G. (2015). *A Study of the System of Taekwondo Spirit*. Unpublished paper. Kukkiwon.
- Kim, Y. S., & Yeo, I. S. (2018). 'Martial art' vs 'Martial way' as a Major Generic Concept of Taekwondo. *Taekwondo Journal of Kukkiwon*, 9(1), 23-56.
- Korea Taekwondo Association (1972). *A Code of Courtesy. Taekwondo Textbook; Poomsei*. - Interscience Publication, Kukkiwon (2011). *Taekwondo People's Manners*. Unpublished paper.
- Lee, J. D. (2011). Taekwondo Spirit Derived from the Behavioral Essence of Martial Arts and Sport. *Taekwondo Journal of Kukkiwon*, 2(1), 1-19.
- Lee, J. D., Yoo, D. H., Song, S. Y., & Kim, D. W. (2014). *A Study on the Spiritual values of Taekwondo Practice*. Unpublished paper. Kukkiwon.
- Lee, J. H. (2016). *How do Philosophical analysis work?* - Interscience Publication, Paju: Seokwangsa Publishing.
- Lee, K. M. (2003). *The Spiritual World of Taekwondo*. - Interscience Publication, Seoul: SangA Publishing.
- Lee, K. M. (2010). *What is taekwondo spirit?* Retrieved 2021 January 17th, from <http://tkdphil.egloos.com/1235122>.
- Lee, K. S., Lee, S. H., Han H. J., & Ahn Y. K. (2006). *A Study on the Taekwondo Spirit*. Unpublished paper. Taekwondo Promotion Foundation.
- Lee, T. G. (2012). *Dictionary of Military terms*. - Interscience Publication, Seoul: Ilweolseogak Publishing.
-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Web Dictionary of the Standard Korean*. Retrieved 2021 January 5th, from <https://stdict.korean.go.kr/search>.
- Park, C. H. (1957). *Pasa Kwonbeop*. - Interscience Publication, Seoul: Kangdeokwon.
- Planning Group (2010). *Being a Cousin with Ancient Idioms*. - Interscience Publication, Paju: Seohaemunjip Publishing.
- Ryoo, B. K. (2007). *Taekwondo is good for your mental health*. - Interscience Publication, Seoul: Gwangrim Bookhouse Publishing.
- Seo, J. Y. (2009.3.2). *Taekwon English*. Taekwondo Newspaper.
- Song, H. S. (2011). A Study of the Taekwondo Spirit. *Philosophy of Movement :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 Society for Sport and Dance*, 20(1), 181-195.
- Taekwondo Instructor's Staff (1959). *Taekwondo Textbook*. Unpublished paper, The Korean Military Academy.
- Vocabulary Information Processing Laboratory, *Web Dictionary*. Natmal corporation, Retrieved 2021 January 18th, from <https://www.natmal.com/>.
- Zacharski, A. J. (2019). *Phenomenon and Problems of the Modern Okinawa Karate; The spirituality of karate aimed at by karate mast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he Ryukyus.

A Critical Acceptance Perspective on the 5 tenets of Taekwondo advocated by Choi Hong-Hi

Kim, Young-Sun^{1*}

1, Yonsei University, Lecturer

Abstract

Purpose This paper investigates, from a critical acceptance perspective, the 5 tenets that have collectively encompassed the concept of Taekwondo spiri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limitations and strengths of the 5 tenets in detail, then to supplement their shortcomings and valorize their strengths, and finally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universal and valid conceptualization of Taekwondo spirit.

Method A philosophical analysis was adopted as the research method. The detailed research issues include: first, how the 5 tenets were conceived, and their origins; second, the specifics of the 5 tenets; and third, the strengths and limitations of the 5 tenets in terms of critical acceptance.

Conclusion This paper analyzes the strengths and limitations of the 5 tenets in terms of critical acceptance and draws the following conclusions. The strengths of the 5 tenets are their popularity, simplicity, and contextual descriptions in Taekwondo. On the other hand, the limitations of the 5 tenets were identified as follows. First, There was no justifiable ideology of Taekwondo. Second, the conceptual breadth of the 5 tenets was narrowly focused only on social virtues and mental toughness. Third, terms such as courtesy and integrity have semantic connectivity similarity and redundancy. Fourth, as shown in the tenet of indomitable spirit, Choi Hong-Hi, who was a military general at the time, focused on factors of mental toughness based on his own value judgment.

Keywords Taekwondo spirit, 5 tenets of Taekwondo, Choi Hong-Hi, philosophy of Taekwondo

논문투고일: 2021.02.03.

논문심사일: 2021.03.02.

심사완료일: 2021.03.28.